

4、研究發表會와 講演會의 開催
5、其他評議員會에서 必要하다고 決定한 事業

第六條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사람으로서 評議員 二名以上의 推薦으로서 入會된다.

第七條 本會에 名譽會員을 들 수 있다. 名譽會員은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貢獻한 人으로서 評議員會에서 推戴한다.

第八條 會員은 本會의 學報 및 發表會에 그 研究를 發表할 수 있으며 學報를 配布받는다.

第九條 會員은 本會 所定의 會費를 負擔하며 評議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수 있다.

第十條 本會에 總會 評議員會 및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十一條 總會는 會員으로서 構成하며 代表委員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二條 總會는 評議員을 選出하며 本會의 事業報告를 받는다.

第十三條 評議員會는 會則의 改定과 豫算 決算 決算 및 事業計劃을 審議하고 運營委員會를 選出한다.

第十四條 運營委員會는 本會를 運營하며 評議員會에 그 業務를 報告한다.

第十五條 運營委員會에 代表委員을 둔다. 代表委員은 本會를 代表하며 運營委員會이 이를 互選한다.

第十六條 運營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들 수 있다. 常任委員은 運營委員會가 評議員中에서 選出한 幹事의 協助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第十七條 運營委員會는 學報 및 刊行物의 編輯會議를 構成하고 本會의 事業을 執行하며 代表委員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八條 評議員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며 運營委員會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重任할 수도 있다)

第十九條 本會의 各級議事는 在籍過半數以上 出席 在席過半數以上 同意로서 議決한다. 但 會則의 改正은 在席 三分之二以上의 同意로써 이루어진다.

第二十條 本會는 會費 및 刊行物收益金、贊助金 및 補助金 등으로 運營한다.
第二十一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一月一日에 시작하여 十二月三十一일에 끝난다.

附 則
本會則은 一九六八年二月十八일부터 施行한다.

任員名單(가, 나, 다順)

名譽會員(九名)

金岸基 金載元 閔丙燾 朴鍾和 尹章燮 李弘植 張衡植 趙明基 黃潤克
評議員(三十二名)

金光洙 金東賢 金相朝 金永培 金英夏 金元龍 金正基 金和英 金禧庚
孟仁在 文甲洙 文明大 朴容煥 朴日燾 朴敬源 申榮勳 安承周 尹武炳

尹容鎮 李永樂 李雲成 李殷昌 李浩官 全暎雨 鄭明鎬 鄭良謨 鄭永鎬
秦弘燮 崔淳雨 崔完秀 黃壽永 洪思俊

運營委員(七名)
金元龍 尹武炳 鄭永鎬 秦弘燮 崔淳雨 洪思俊 黃壽永

幹事(一名) 文甲洙
常任委員(一名) 鄭永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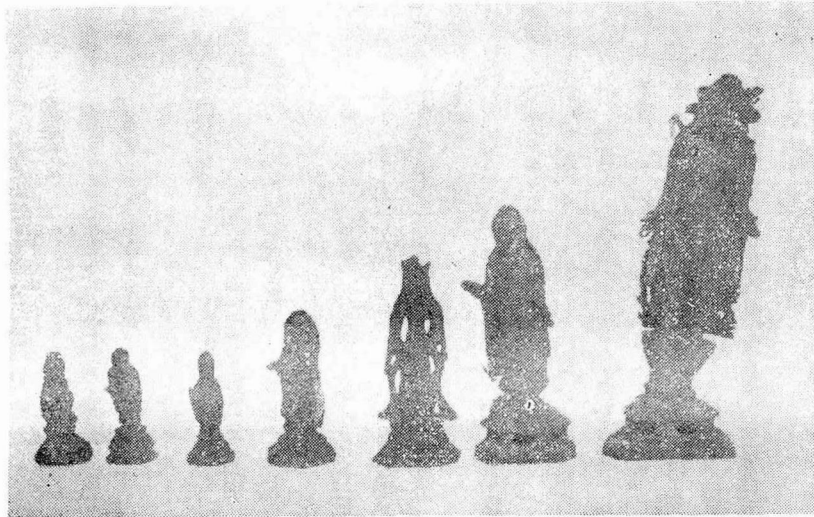
代表委員(一名) 秦弘燮

— 第九卷 第四號 通卷九十三號 —

大典寺發見 金銅佛像

秦 弘 燮

大典寺는 靑松郡 靑松面 郡廳所在地에서 東南方으로 十三km 府東面 上宜洞 奇岩絶壁이 솟은 周王山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좁은 溪谷을 따라 올라가면 周王山과 마주치는 곳에 巨大한 岩壁이 솟고 바로 그 밑에 寺域이 마련되었으나 지금 法堂 一棟을 남긴뿐 남은 寺域은 廢墟化되었다. 이곳에는 優秀한 彫刻이 있는 塔材를 남기고 大井에는 佛像을 埋葬하였다는 說이 있어 往年의 盛觀을 짐작케 하였으나 지난 四月五日 寮舍에서 西方約 四〇m 地點 지금은 밭으로 變換한 舊建物址 地下約 四〇cm에서 偶然히 金銅 或은 銅造 佛像 七軀를 包含한 香垵 其他 佛具들이 融固된 狀態로 發見되었다. 이들 遺物中 佛像은 비록 小品이기는 하나



刻명한彫刻樣式을 보여주고 있어 後考의 資料가 되기에 充分함으로 그 大略을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順序는 寫眞右로부터의 順序를 따랐다)

一、金銅如來立像 全高一八cm

八角蓮臺위의 立像으로 上下臺에는 蓮花가 彫刻되고 中臺에는 圓에 가
까운 限象이 透刻되었으며 이 위에 圓錐倒置形의 座臺가 마련되었다.
佛身의 相好는 圓滿相이며 法衣는 通肩인데 胸前에 裙衣가 있고 兩脚에
는 橢圓形衣紋이 있다. 背後에는 光背가 附着되어 頭光에는 八葉蓮花

가 있고 光背 周緣
에는 火焰文이 透刻
되었던듯 하나 大部
分 損傷되었다. 表
面에는 若干의 鍍金
이 남아 있다.

二、銅造如來立像 全高一·五cm

仰蓮과 伏蓮이 있
는 六角 蓮臺위의
立像이다. 이 蓮瓣
에는 귀꽃이 있었던
痕蹟이 남아 있다.
相好는 圓滿相으로
素髮이며 法衣는 通
肩이고 두 무릎에 橢
圓形衣紋이 나타나
있다. 목에는 三道
가 없고 두 손은 通
印이다. 背面은 空
筒을 이룬 위에 光

背가 一部 附着된대로 남아 있으나 損傷이 甚하여 形態나 彫飾을 알 수
없다.

三、銅造菩薩立像 全高九·五cm

仰伏蓮이 連接된 八角臺座 위의 立像이다. 顔面에는 損傷이 甚하나
三面冠이 뚜렷하고 兩側에 흘러내린 動的인 天衣에는 透刻手法이 應用
되었다. 小品이기는 하나 매우 整齊된 造型이며 特別히 側面觀은 아름답
다. 背後에 衣紋은 없으나 全體에서 量感을 느끼게 하는 佳作이다.

四、銅造如來立像 全高八·四cm

다른 金屬物質이 全面에 融解 固着되어 細部를 알 수 없으나 六角臺
座위의 立像이고 두 손은 通印인듯 하다. 彫刻手法은 佳良한 便으로 固
着된 物質을 分離하면 좋은 作品이 될 것이다.

五、銅造如來立像 全高五·八cm

小品이나 刻명한 細部를 가장 잘 남기고 있다. 伏蓮 八葉의 座臺위의
立像으로 相好는 圓滿相이고 耳目口鼻가 明瞭하다. 頭髮은 素髮이고 肉
髻는 적은 便이다. 法衣는 通肩이고 두 무릎과 腹前에 各各 平行 孤線
이 있다.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全體에서 大作에 지지 않는 整齊美와
量感이 풍기고 있다. 또 衣紋을 背後 左側에까지 表現하는 精巧한 솜씨
를 보여주고 있다.

六、銅造如來立像 全高五·五cm

八葉 單瓣 伏蓮의 蓮臺위의 立像으로 相好는 刻明하고 素髮한 頭部는
큰 便이며 肉髻도 크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法衣는 通肩이며 前面에서
平行 孤線이 그려져 있다. 두 손은 通印이며 背後中央은 若干 과져 있다.

七、銅造如來立像 全高五·五cm

이 佛像도 다른 金屬物質이 溶解 固着되어 細部를 알 수 없다. 다만
頭部, 肉髻가 모두 큰 便이고 두 손이 通印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以上 七軀의 佛像은 모두 小品이기는 하나 造形手法은 모두 優秀하고
各其 古式의 樣式을 보여 주고 있다. 火災로 因하여 다른 遺物과 함께
地下에 埋沒되었지만 溶解되지 않고 이만한 原形을 保有하고 있음도 多
幸이라 할 것이다. 製作年代도 모두 八世紀를 前後한 것으로 推定되었

다. 佛像外의 發見品은 다음과 같다.

八、銅製香奩

身臺가 遊離되었고 身部는 融解되어 原形을 알 수 없으나 臺는 上徑 三·五cm, 下徑 一三·六cm, 高一·一cm로 밑이나 判形으로 擴大된 圓筒形이다.

九、欄竿形金具

遊離된 二片의 金具로서 其一은 ㄱ形으로 長邊 一三·九cm, 短邊 五·八cm, 高二·八cm이다. 兩隅角의 連接部는 上部에서 圓形部材가 十字形을 이루었고 各隅角에는 方柱가 세워졌다. 各面은 上下二段으로 區分하여 長邊에 上下 九個씩 短邊에 各各 上下 三個씩의 透孔이 있다.

다른 하나는 長七·五cm, 高二·四cm의 半月의 橋樑形으로 兩側에 上下二段에 童子柱가 있는 欄竿이 設置되었고 上面은 橫으로 凸凹을 交替로 나타내고 있다.

이 金具가 무엇에 使用된 것인지 곧 알 수 없었으나 或 銅裂 小塔의 一部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외에 이 寺域內에서 高約二四cm의 石佛頭가 發見되었다. 이 佛頭는 大破되어 顔面의 細部를 알 수 없으나 매우 均衡있는 輪廓을 볼 수 있어 그 造成 또한 統一新羅時代로 推定되었다.

이와같은 一連의 遺物을 綜合하면 이 伽藍의 創建이 相當히 오래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데도不拘하고 大典寺에 關한 記錄이 傳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寺域全體에 對한 좀 더 細密한 調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陰城 平谷里寺址와 石佛坐像

— 陰城邑內의 佛蹟 其二 —

鄭 永 鎬

一、寺 址

陰城邑 平谷里 基谷部落이 古刹址로 알려져 있어 調査한 바 있다. 이 部落은 邑內에서 約二km 되는 곳으로 옛부터 刹地(寺址) 或은 향교터 (鄉校址)라 불리운다는데 洞里에서 傳聞한 바에 依하면 本時 羅代의 大刹址이나 後世에 鄉校를 이곳에 세웠으며 現在 邑內 秀峰國民學校 뒷 畝의 鄉校가 韓末에 이곳에서 移建된 것이라 한다. 한편 調査에 同行한 陰城教育廳의 金富年先生과 秀峰國民學校의 安孝景先生께서도 같이 證言하고 있다. 그런데 東國輿地勝覽(卷六十四陰城縣 學校條)에도「鄉校在縣東一里」라 있어 鄉校의 位置가 東쪽임이 確實한데 現在의 鄉校는 邑에서 北쪽이 됨으로 同記錄과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上記 基谷部落이 鄉校의 原位置임에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部落에서 現位 置로 移建했다는 것과 「향교리」라는 別稱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 移建時期는 어느 때였는지 알 수 없다. 韓末에 移建했다는 것은 洞民들의 口傳뿐으로 아직 記錄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正確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한 이 部落이 新羅時代의 寺址란 것은 여기에 關한 記錄은 없으나 口傳과 現存 遺物 등으로서 推測케 하고 있다. 卽 遺物로는 몇 家戶에 數枚의 長大石이 있으며 特히 平谷里 四四二의 一番地 廉鍾敏氏宅에는 遺物基壇部에 圓座의 柱礎石을 넣어 積土하였는데 方形의 中央에 三段三輪의 圓座를 刻出한 樣式手法이 典型的인 統一新羅時代의 柱礎石으로서 慶州一圓에 散在한 羅代의 他例에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다고 보겠다. 廉氏의 말에 依하면 이 柱礎石은 家屋建築時臺地整理 때 出土된 것이라 하며 아직도 많은 同類의 柱礎石이 埋沒되어 있음을 것이라 하는데 더욱이 注目할 말은 이 地點에서 無數한 瓦片이 出土된 中「威通六年」이란 銘瓦가 있었다는 것이다. 威通六年인지 그 六年代의 記憶은 뚜렷치 않으나 「威通〇年」은 틀림 없었다고 한다. 主人인 廉氏나 當時 役事를 돕던 部落民들도 書堂을 다니고 있어서 漢字는 判讀할 수 있었다 하며 또 現在 廉氏는 洞里有志로 識層에 屬하므로 上記 瓦銘의 出土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이 瓦片은 그後 어떻게 되었는지 無關心으로 保存되지 않았으나 出土된 事實만은 아직도 生生하게 傳해지고 있